



멕시코의 그린전구 지원 정책

탄소배출권 팔아 그린전구로 교체

그린전구 교체, 청정개발체제(CDM)프로젝트와 연계 실시 계획

현재 멕시코에서는 연방정부 차원에서 백열등을 에너지절약형 그린 전구로 교체할 경우 보조금을 지급하는 프로그램을 청정개발체제(CDM)프로젝트와 연계하여 실시하는 것을 계획하고 있다. 정부는 동 프로그램을 통해 앞으로 4년간 전구 1개 당 1.53유로의 탄소배출권 판매수익을 얻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동 프로그램의 목표는 백열등의 75%를 그린전구로 교체하는 것이다. 동 프로그램 시행기관인 에너지절약신탁기금(FIDE)에서는 전구 대체를 통해 향후 4년간 3,500만 톤의 이산화탄소 배출을 줄일 수 있으며, 현 시세로 3억 유로 이상의 탄소배출권 수출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현재 에너지부(SENER)에서는 동 프로그램의 세부 규정을 마련하고 있으며, 온실가스저감 프로젝트로 환경부(SEMARNAT)에 등록이 끝나는 대로 UN기후변화협약사무국을 통한 청정개발체제(CDM)에 등록절차를 밟을 예정이다. 동 절차에는 약 6개월 정도가 추가로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어, 금년 말에는 에너지절감 전구교체 프로그램이 본격적으로 시행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에너지절약신탁기금(FIDE)에서는 연방전력공사(CFE)과 함께 청정개발체제(CDM)프로젝트와는 별도로 1990년도부터 에너지 절약 차원에서 보조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백열등 교체 프로그램을 시행해 오고 있다. 현재까지 총 2,630만 개의 전구교체에 보조금이 지급되었다고 한다. 그러나 동 프로그램을 청정개발체제(CDM)프로젝트와 연계하여 실시할 경우 교체 프로그램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아직까지는 멕시코에서 탄소배출권 수익을 통한 전구교체 보조금을 지급한 사례가 없어, 정부에서도 신중하게 동 프로그램을 준비하고 있다.

에너지절약형 그린전구는 에너지 효율이 일반 백열등에 비해 월등하지만 가격이 비싸 저소득층에서는 구매에 큰 부담을 느끼고 있다. 그러므로 동 프로그램은 주로 저소득층을 타깃으로 시행될 예정인데, 저소득 가구 수는 약 1,500만 가구 정도이다. 멕시코 통계청(INEGI)에 따르면 연간 2억 7천만 개의 전구가 판매되고 있는데 이중 2억 5백만 개를 동 프로그램을 통해 그린전구로 교체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그린전구 교체 프로그램으로 급성장이 전망되는 멕시코 시장

현재 멕시코 그린전구시장은 필립스(PHILIPS), 오스람(OSRAM) 및 제네랄일렉트릭(GE)이 대부분의 시장을 점유하고 있는 가운데, 라이팅(LAITING), 필코(PHILCO),

티쉬멘(TISHMEN) 등이 적극적으로 시장진출을 꾀하고 있다.

현재 멕시코 시장에서 필립스, GE, 오스람의 3개 업체가 높은 시장 지배력을 가지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정부의 목표인 2억 개 정도를 교체할 경우 공급이 부족할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그러므로 우리 업체들이 진출할 여지는 충분할 것으로 보인다. 그린전구는 전자제품 유통업체와 대형소매점에서 주로 취급하고 있는데, 이런 업체들은 초기 거래 성사가 어려우나 현재 동 프로그램시행 예상 시기(금년 말)까지 시간이 있으며, 내년부터 관세율이 현 15%에서 10%로 인하되는 것도 긍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고효율기자재인증마크(Sello FIDE)획득을 통한 전구교체프로그램 참여

한편 멕시코 전구교체 프로그램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고효율기자재 인증마크(Sello FIDE) 획득이 선행되어야 한다. Sello FIDE 인증마크를 취득한 기업은 회사의 브랜드 이미지를 제고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정부에서 추진하는 프로그램 참여시 혜택을 기대할 수도 있다. 또한 Sello FIDE 인증을 받은 제품을 구매하는 소비자도 전기요금을 절감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제품 구매 시 장기 용자를 받거나 제품에 따라서는 보조금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멕시코 Sello FIDE 인증마크 획득을 위해서는 국내외 공인검사기관에서 발행하는 효율성 증명서를 제출해야 한다. FIDE는 제출된 증명서 검토와 함께 공장을 실시하여 최종적으로 인증마크 부여 여부를 결정한다. 멕시코 현지에 법인이 설립되어있지 않은 한국기업의 경우, 이 인증마크 취득을 위해서 한국 또는 국제적인 에너지 효율 인증서를 제출하고 에너지절약신탁기금(FIDE) 관계자를 한국으로 초청하여 실사를 받은 후 인증마크를 받을 수 있다고 한다.

현재 멕시코는 청정개발체제(CDM) 프로젝트를 통해 약 2억 개의 절전형 전구교체 수요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유망한 시장이다. 기존 다국적기업들의 입지가 확고한 것은 사실이나, 추가 수요급증으로 공급이 부족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어 가격 경쟁력이 크게 떨어지지 않는 한 우리기업의 진출 가능성은 존재한다고 할 수 있다. 고효율기자재인증마크(Sello FIDE)를 획득하고 전기산업전시회(Expo Electrica) 등 관련 행사를 통해 제품 및 브랜드를 홍보하는 등 적극적인 마케팅이 필요하다. [K](#)

※ 청정개발체제(CDM)이란?

- 의무국이 비의무국에 혹은 비의무국 단독으로 온실가스 감축 프로젝트를 실시하여 배출권을 부여받는 체제
- 동 배출권을 의무국의 온실가스 감축 실적으로 활용하거나 다른 의무국에 판매, 혹은 다음 의무 기간을 위해 예치 가능함
- CDM을 통해 발생하는 배출권을 CERs(Certified Emission Reductions)라고 함